한국 핸드볼의 살아있는 전설 윤경신(왼쪽 사진 한 가운데 키 큰 이) 두산 핸드볼팀 감독이 7일 강원도 태백시 장성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원랜드 레전드 초청 스포츠 꿈나무 교실' 행사에서 유소년 선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하우를 전하는 윤 감독이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나 모두 환한 미소를 짓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태백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핸드볼 神' 윤경신 나타나자 "진짜 왔다" 입 벌어진 아이들

레전드 초청 강원랜드 스포츠 꿈나무 교실…태백 장성초에 윤경신이 떴다

신난 아이들, 203cm 윤 감독과 키 재보기도
술래잡기 훈련·슈팅기술 전수 등 세심한 지도
피자파티·질의응답·기념촬영 등 특별한 시간

7일 이른 오전 서울에서 강원도 태백시로 가는 길은 온통 눈 나라였다. 두산 핸드볼팀 윤경신(44) 감독은 전날 밤 함박눈이 펑펑 내리자 혹시 아이들과 만남이 늦어지거나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다. 다행히 눈은 그쳤고 큰 길은 운전하기 수월했다.

윤 감독은 출발을 서둘렀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태백 장성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체육관 문을 연 순간, 아이들은 동시에 멈춰 섰고 잠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진짜 크다", "진짜 왔다"라는 수군거림이 좀 더 이어진 후에야 아이들은 수줍게 인사했다. 윤 감독은 활짝 웃었고 직접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챙긴 사인볼과 자신의 현역 시절 유니폼, 두산 로고가 새겨진 털모자를 꺼냈다.

윤 감독은 한국보다 오히려 핸드볼 인기가 뜨거운 독일에서 더 유명한 국제스타였다. 야구는 박찬호, 축구는 박지성이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스포츠 영웅이었다면 윤 감독 역시 세계 최고의 핸드볼 선수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

모두 핸드볼 선수지만 초등학생들이라 윤 감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러나 모두 '검색의 달인'들이었고 분데스리가 8차례 득점왕, 통산 최다득점 기록, 올림픽 5회 출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5개 등 주요 기록이 줄줄이 나왔다.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아는 만큼 더 어렵고 수줍었지만 윤 감독은 "키(203cm)가 정말 크죠?"라고 웃으며 허리춤에 머리가 겨우 닿는 아이들과 직접 키도 재주며 친근히 다가갔다.

●황지초 5년 여학생, 핸드볼 레전드 윤경신 사로잡아

한 달 전 그에게 '레전드 초청 강원랜드 스포츠 꿈나무 교실'(주최 스포츠동아·동아일보·채널A·동아닷컴, 후원 강원랜드)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을 때, 윤 감독은 기꺼이 개인일정까지 변경하며 "꼭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도 지역 핸드볼 유망주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마음이었다.

윤 감독의 이번 태백행에는 8년 이상 국가대표 수문장으로 활약한 골키퍼 박찬영, 그리고 슈팅 능력이 뛰었던 김세호(이상 두산)가 동행했다. 세 사람은 이날 장성초 남자선수 12명, 황지초 여자선수 13명을 함께 지도했다.

윤 감독은 직접 A4용지 세 장에 정리한 레슨 프로그램을 알기 쉬운 설명으로 진행했다. 또한 정상급 실업 선수들의 시범을 곁들여 집중도를 높였다. 특히 점점 더 '술래'가 늘어나는 게임을 접목한 체력 훈련은 아이들에게 폭발적 호응을 받았다. 슈팅과 패스도 페인팅, 스텝 기술을 익힐 수 있게 세심히 지도했다.

이날 윤 감독은 남다른 슈팅 능력을 선보인 황지초 5학년 신채연에게 "몇 학년이니? 정말 잘 한다"며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레슨에서 훈련한 것들을 실전에 적용하는 미니 게임이 열렸고, 이어 윤 감독은 아이들과 코트에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함께 먹는 동안 그에게는 '핸드볼의 신'에게 궁금했던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냐"고 묻자, 윤 감독이 "처음에 핸드볼을 시작할 때는 키가 작았다. 잘 먹고 즐겁게 훈련하면서 컸다"고 답하자 학생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쉽게 끝날 줄 모르는 학생들의 질문세례에도 그는 즐거운 표정이었다.

이날 황지초 에이스로 윤 감독이 관심을 기울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신채연은 "잊지 못할 날이다. 2인1조 술래잡기는 재미있었고 슈팅 훈련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며 핸드폰을 꺼내 직접 기념촬영을 청하기도 했다. 장성초 6학년 진영록은 "핸드볼을 열심히 해서 두산에 입단하고 싶다"며 웃었다. 같은 학년 이희찬은 "윤경신 감독님을 직접 만난 것만으로도 엄청난데, 두산 선수들과도 함께 훈련해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윤 감독은 아이들의 사인 요청과 사진촬영 부탁에 한명씩 모두 응했다.

윤 감독은 편도 4시간을 달려온 여독, 그리고 오후 내내 이어진 레슨, 그리고 다음날 곧장 삼척초등학교 선수들과 꿈나무 교실이 예정돼 있어 마음이 급할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꿈나무들을 대했다.

윤 감독은 "장성초는 전교생이 100여명이다. 한 학년에 20명이 되지 않는데 핸드볼 팀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열정에 탄복했다. 황지초에는 매우 잠재력이 큰 선수들이 있어 무척 반가웠다.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태백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KANGWON LAND 강원랜드

'슈퍼 루키' 최혜진, 첫 승을 개막전으로

KLPGA 효성 챔피언십 정상…프로 첫 승

이 정도면 '슈퍼 루키'라는 수식어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최혜진(18·롯데)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년 공식 개막전에서 우승했다. 프로선수로는 첫 번째 정상 등극이다. 10일(한국시간)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6456야드)에서 벌어진 효성 챔피언십 with SBS(총상금 7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혜진은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최혜진

올해 8월 프로로 전향한 이후 4개월 만에 KLPGA 투어 우승 트로피를 챙긴 최혜진은 1억4000만원의 2018시즌 마수걸이 상금을 손에 넣었다.

선두 파린다 포칸(태국)에 5타 뒤진 공동 4위로 마지막 날 라운드에 나선 최혜진은 운 좋게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챔피언 조 바로 앞에서 경기를 치른 최혜진은 11번홀(파4)까지 2타를 줄이고 있었다. 뒤를 따르던 포칸이 11번홀(파4)에서 더블 보기를 하면서 이날만 3타를 잃으며 중간 합계 8언더파로 내려앉자 최혜진은 더 힘을 냈다.

최혜진은 12번과 13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한국 선수들의 맹추격에 힘을 잃은 포칸은 14번홀(파3)에서 다시 한 타를 잃어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최혜진은 14번홀부터 타수를 잃지 않으며 경기를 마무리 했다. 2타차 여유를 가진 선두 최혜진은 안전하게 경기를 운영해 타수를 지키는데 집중한 끝에 우승트로피를 지켜냈다.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깔끔하게 버디만 4개를 기록한 박결(21·삼일제약)을 비롯해 서연정(22·요진건설), 임은빈(20·볼빅) 등 3명이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10일〉

•2017-2018 정관장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SK	20	15	5	0.750	0	2승
2	KCC	21	15	6	0.714	0.5	2승
3	DB	20	14	6	0.700	1	1패
4	전자랜드	21	12	9	0.571	3.5	1패
5	인삼공사	21	11	10	0.524	4.5	3승
6	삼성	20	10	10	0.500	5	2패
7	현대모비스	21	10	11	0.476	5.5	1승
8	LG	20	7	13	0.350	8	3패
9	오리온	21	5	16	0.238	10.5	2패
10	kt	21	4	17	0.190	11.5	1패

•경기결과

8일	오리온 (5승15패)	87	39 45	26 - 20 13 - 24 28 - 20 17 - 20	44 40	94	SK (15승5패)
	kt (4승16패)	88	44 44	20 - 22 24 - 16 22 - 13 22 - 27	38 40	78	삼성 (10승10패)
9일	현대모비스 (9승11패)	63	27 36	12 - 21 15 - 16 17 - 21 19 - 25	37 46	83	인삼공사 (10승10패)
	KCC (14승6패)	82	42 40	24 - 11 18 - 16 21 - 19 19 - 30	27 49	76	DB (14승6패)
	전자랜드 (12승8패)	82	32 50	17 - 15 15 - 19 24 - 20 26 - 14	34 34	68	LG (7승13패)
10일	현대모비스 (10승11패)	82	48 34	25 - 19 23 - 11 16 - 23 18 - 19	30 42	72	오리온 (5승16패)
	KT (4승17패)	71	27 44	7 - 23 20 - 20 21 - 34 23 - 19	43 53	96	KGC (11승10패)
	KCC (15승6패)	94	55 39	23 - 20 32 - 20 21 - 21 18 - 26	40 47	87	전자랜드 (12승9패)

여자프로농구 〈10일〉

•2017-2018 신한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13	10	3	0.769	0	5승
2	KB스타즈	12	9	3	0.750	0.5	1패
3	신한은행	12	6	6	0.500	3.5	2패
4	삼성생명	13	5	8	0.385	5	1패
5	KDB생명	13	4	9	0.308	6	1승
5	KEB하나	13	4	9	0.308	6	1패

•경기결과

8일	우리은행 (9승3패)	76	36 40	15 - 25 21 - 16 17 - 14 23 - 16	41 30	71	KB스타즈 (9승3패)
9일	KDB생명 (4승9패)	74	34 40	18 - 17 16 - 18 15 - 10 25 - 23	35 33	68	삼성생명 (5승8패)
10일	KEB하나 (4승9패)	52	28 24	14-23 14-9 12-15 12-19	32 34	66	우리은행 (10승3패)

프로배구 〈10일〉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삼성화재	15	11	4	30	1369	1280	2패
2	현대캐피탈	14	9	5	28	1203	1146	3승
3	KB손해보험	14	8	6	22	1321	1294	2승
4	대한항공	14	7	7	22	1317	1288	1승
5	한국전력	15	6	9	21	1260	1309	1승
6	우리카드	14	5	9	14	1272	1354	1패
7	OK저축은행	14	4	10	13	1282	1353	4패

•경기결과

8일	KB손해보험 (11승4패)	3	25 - 23 25 - 22 25 - 17	0	우리카드 (5승9패)
9일	현대캐피탈 (9승5패)	3	25 - 21 25 - 21 21 - 25 25 - 21	1	OK저축은행 (4승10패)
10일	삼성화재 (11승4패)	1	19 - 25 28 - 26 20 - 25 23 - 25	3	한국전력 (6승9패)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도로공사	12	8	4	26	1064	985	5승
2	현대건설	12	8	4	24	1040	959	1승
3	IBK기업은행	12	7	5	20	1061	1050	2승
4	인삼공사	12	5	7	16	993	1041	3패
5	GS칼텍스	12	5	7	11	1010	1048	2패
6	흥국생명	12	3	9	11	907	992	1승

•경기결과

9일	GS칼텍스 (5승7패)	0	21 - 25 16 - 25 21 - 25	3	현대건설 (8승4패)
10일	흥국생명 (3승9패)	3	25 - 23 25 - 22 25 - 19	0	인삼공사 (5승7패)

아마추어 경기결과 〈10일〉

배드민턴 ●2017 한일 우수 청소년 배드민턴 교류전(일본 나가사키)
•남자부 2차전=일본 7-2 한국 •여자부 2차전=일본 6-3 한국
●2017 인천공항 배드민턴 코리안리그(인천 남동체육관)
•남자 실업부 단체전 6강=새마을금고 3-0 충주시청, 밀양시청 3-0 요넥스 •여자 실업부 단체전 6강=김천시청 3-0 포천시청, 삼성전기 3-0 화순군청

빙상 ●제 33회 회장배 전국 남여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목동 실내빙상장) •1500m 남자 일반부 결승전=① 김병준(고양시청), ② 김동욱(스포츠토토), ③ 황재민(성남시청) •1500m 여자 일반부 결승전=① 노아름(전북도청), ② 신새봄(스포츠토토), ③ 천희정(인천체육회) •1500m 남자 대학부 결승전=① 임용진(경희대), ② 박지원(단국대), ③ 홍경환(한체대) •1500m 여자 대학부 결승전=① 노도희(한체대), ② 안세정(한체대), ③ 김효진(성신여대) •15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① 이준서(신목고), ② 우준혁(동북고), ③ 문원준(휘문고) •15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① 김지유(화정고), ② 김건희(만덕고), ③ 유현민(신목고)

경기 예고

여자프로농구 〈11일〉

•2017-2018 신한은행 WKBL

KB스타즈 〈청주체육관〉 신한은행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11일〉

농구 ●2017-2018 KBL D리그(고양보조)
•DB-오리온(오후1시30분), 상무-SK(오후3시30분)

핸드볼 ●제 23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독일)